

〈優秀碩士學位 論文 要約〉

서울大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研究

金 相 湜*

目 次

第1章 序 論	第4章 서울大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實態分析
第1節 研究目的과 意義	第1節 資料의 蒐集과 分析方法
第2節 研究範圍	第2節 敎職員의 一般住居事項에 關한 實態分析
第3節 研究方法	第3節 住居移轉 敎職員에 關한 實態分析
第2章 서울大學校移轉과 敎職員의 實態	第4節 住居非移轉 敎職員에 關한 實態分析
第1節 서울大學校移轉의 經緯	第5章 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問題點과 그 對策
第2節 敎職員의 實態와 職·住分離問題에 對한 當局의 試圖	第1節 住居移轉에 關한 問題點
第3章 都市內部構造改善과 機能向上을 위한 理論과 戰略	第2節 職·住近隣實現의 方向
第1節 大都市 問題의 一般의 特性	第6章 結 論
第2節 大都市 問題의 解決을 위한 接近 方法	參考文獻
第3節 서울市の 경우	附錄(設問調查書 및 交叉分析表)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目的과 意義

後進國의 都市化의 「템포」는 先進社會의 경우보다는 빠르고, 工業化보다 先行하면서 西歐가 겪었던 것 보다는 훨씬 많은 都市問題가 惹起 된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例外가 아니며, 特히 首都 서울의 過大過密化問題는 現下 韓國의 急激한 都市化가 提起하는 問題의 頂點이기도 하다. 本 研究의 目的은 都市內部에서 문제를 解決하려는 接近方法으로서 都市內部構造를 改革하여 多核都市로 轉換시켜 보려는 試圖의 한 方法인 職·住近隣의 手法을 都市開發政策으로 展開할 수 있는 可能性을 서울大學校의 江南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移住 實態를 分析하여 그 適實性을 檢討한 後 앞으로의 都市開發政策樹立에 寄與할 수 있도록 對案의 方法을 提示함에 있다. 尙今 江北과 江南의 人口比率은 70 : 30으로 江北이 훨씬 높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計劃學科) 第四回卒業

은 實情을 고려할 때, 政府次元에서 江北機關의 江南移轉事業으로선 가장 規模가 큰 서울大學校의 江南移轉이 이루어진 事例를 分析함이 위의 都市內部構造 改善策에 對한 具體的인 資料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今後 江北機關의 江南移轉에 따른 政策樹立에 對한 貴重한 資料로서 使用될 수 있음이 또한 本 研究의 意義이다.

第 2 節 研究範圍

研究範圍는 設問調査에 應答한 敎職員(4級 以上 職員과 專任講師 以上의 敎員)을 住居移轉者와 非移轉者로 區分하여 各各의 特性과 關係되는 事項을 分析하며 時間的으로는 1971년부터 1976年 10月末까지를 範圍로 하였다.

第 3 節 研究方法

本 研究는 一部 文獻調査와 豫備調査를 거쳐 作成한 設問調査를 主로 使用하였으며 設問紙調査方法은 對象 敎職員全員에 調査員을 通하여 直接 配付한 後 一定期間 後에 回收하는 準郵送式調査方法으로 하였다. 위 設問調査書를 電算處理하여 研究하고자 하는 內容을 分析하였다.

第 2 章 서울大學校移轉과 敎職員의 實態

(要約이므로 省略)

第 3 章 都市內部構造改善과 機能向上을 爲한 理論과 戰略

第 1 節 大都市問題의 一般的 特性

産業革命以後 急激히 增加하기 始作한 人口는 産業化와 더불어 經濟活動과 政治, 社會, 文化 活動의 增大 및 交通 通信의 發達로 因하여 都市로 集中하기 始作하여 이른바 都市化 現象을 促進시키게 되었다. 人口規模의 增大에 따라 都市弊害도 擴大되지만 所謂 都市集積 經濟가 相對的으로 더 빨리 늘어남으로 大都市에 對한 人口의 集中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集積의 利益은 集中된 人口規模에 無關하게 持續되는 것이 아니어서 人口의 集中이 過密化되면 密集의 弊害가 集積의 利益을 상회하게 되므로 過密化된 大都市의 問題가 일어나게 된다.

一般的으로 過密化로 因한 大都市의 問題란 無秩序한 都市地域의 平面的擴散, 人口의 不均衡의 配分, 交通通信手段의 不足, 産業活動 및 經濟活動의 不均衡의 分布, 地域間 所得의 隔差, 都市內部的 地價昂등, 極甚한 住宅難, 都心の 過密化 및 都市周邊의 低密化, 職·住分離의 深化, 都心部の 再開發, 大衆交通手段의 交通問題解決을 위한 寄與度の 低下, 各種 公害問題, 社會 文化的 諸問題 等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第 2 節 大都市問題 解決을 위한 接近方法

위의 解決을 爲한 接近方法은 두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으며 이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都市地域 外部에서 解決해 보려는 試圖로서 都市圈의 人口 疏散 및 人口流入抑制의 意圖에서 地方都市의 育成, 新都市의 建設, 衛星都市나 落後된 農村地域의 集中開發 등의 政策들이 이에 該當된다. 두번째는 都市內部에서 內部構造를 改善 시킴으로서 解決해 보려는 試圖이다. 이는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都市內部的 既存構造를 하나의 都心만을 갖고 있는 單核都市(monocentric-city)로 그대로 두고 道路網이나 交通手段 등의 擴大 改善을 통해 都市交通의 能率性を 增大시키므로써 都市生活의 便益을 도모해 보려는 것이나, 土地經濟적으로 價値가 低下된 「슬럼」을 形成하여 주로 住居地로 쓰이는 都心, 或은 그 周邊部를 再開發手法을 通하여 商業, 業務地區로 轉換시키려는 試圖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都心에 대한 交通需要의 急増과 公害發生에 加勢하는 結果를 얻게 되기 쉽다. 다른 하나는 都市內部構造를 改革하여 都心에 密集해 있는 既存의 機能을 再配置시키는 方法이다. 이것은 都心機能을 分散시켜 여러개의 副都心을 갖게 하므로써 從來의 單核都市에서 多核都市構造로 改編함을 뜻하는데, 多核都市라 함은 「都市內의 都市들」(new towns in town 或은 Cities-within-cities)을 意味하고 이들 核都市는 自體充足的인 都市機能을 各 機能圈內에서 確保함을 그 特徵으로 한다.

第3節 서울市の 경우

위의 두가지 接近方法을 土臺로 하여 그 동안의 서울市の 主要都市開發政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71년에 首都圈의 無秩序한 擴大를 防止하고 首都圈에의 流入人口를 抑制하기 위하여 開發制限區域의 設定이다. 둘째로는 首都圈電鐵化作業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現在 運行되고 있는 地下鐵 1號線과 周邊都市로 通하는 電鐵로서 人口分散의 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驛村地區, 金浦地區, 永東地區, 蠶室地區 등을 副都心圈으로 開發하여 都心の 人口와 産業을 分散시켜 보려는 副都心圈의 開發計劃을 들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漢江以北에 密集되어 있는 人口를 江南地域으로 分散시키기 위한 江北人口 分散政策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副都心圈 開發政策의 일환으로 取扱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都市圈內에서 都市機能의 均衡分散을 위해 江南으로 政府機關을 이전하려는 計劃은 住居中心으로 開發된 永東에다 職場을 近接시킨다는 意味로 받아 들일 수 있고 結局 從來의 單核都市에서 多核都市에로의 轉換을 뜻하는 것이 된다. 現在까지 實現된 江南移轉 計劃中 代表的인 것으로는 서울大學校의 冠岳캠퍼스移轉과 京畿高等學校의 永東移轉이라고 할 수 있다.

第4章 서울大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の 住居移轉에 關한 實態分析

第1節 資料의 蒐集과 分析方法

1. 資料 蒐集方法

本 研究에서 利用이 되는 原調査는 1976年 11月 1日 現在 冠岳캠퍼스外的 非移轉機關을 除外한 冠岳캠퍼스에 所屬된 敎員 582名과 一般職 485名の 計 1,067名の 敎職員中 本 研究와 關聯이 적은 助教, 5級 一般職 및 고용원을 除外한 敎員 491名과 職員 194名을 合한 685名을 母集團으로 하여 設問調査書를 1976年 11月 1日 配付하여 其後 10日內 應答하여준 敎員 213名과 職員 117名の 計 330名을 標本으로 標出하였다.

2. 資料의 分析方法과 處理

資料分析方法은 交叉分離方法을 使用하였으며 이 方法은 一定한 變數間의 關係를 調査하기 위하여 그 變數들이 相互比較가 되도록 나란히 配列해 봄으로써 그들이 갖는 資料를 主로 頻度 또는 百分率 等으로 測定해 보는 計量的 製表化(Numerical tabulation)에 의한 分析方法이다. 資料의 處理는 電算處理로 作成하였다.

第 2 節 敎職員의 一般住居事項에 관한 實態分析

1. 現在의 職級別 分析

調査者 330人中 職別 및 職級別 住居移轉者와 非移轉者로 區分할 때 다음 表 <4-2-1>과 같다. 이를 分析하면 住居移轉者는 58.18%로서 非移轉者보다 若干 많다. 移轉比率이 큰 職位別로 보면 專任講師가 83.3%로서 首位이고 두번째는 助教授가 72.23%이고 다음은 4級 一般職으로 60.6%이고 그 다음은 비슷하다.

위의 사실을 더루어 볼 때 젊은 年齡階層의 住居移動 傾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4-2-1> 職級別 分析

職 別 職級別	敎 員					職 員			計
	小 計	敎 授	副敎授	助敎授	專 講	小 計	2, 3級	4 級	
住 居 移 轉	124 (58.22)	46 (51.11)	33 (53.22)	40 (72.73)	5 (83.83)	68 (58.12)	14 (50.0)	54 (60.67)	192 (58.18)
住 居 非 移 轉	89 (41.78)	44 (48.89)	29 (46.78)	15 (27.77)	1 (16.67)	49 (41.88)	14 (50.0)	35 (39.33)	138 (41.82)
計	213 (100)	90 (100)	62 (100)	55 (100)	6 (100)	177 (100)	28 (100)	89 (100)	330 (100)

※ ()안은 %임

2. 性別分析 : 紙面關係로 省略

3. 年齡別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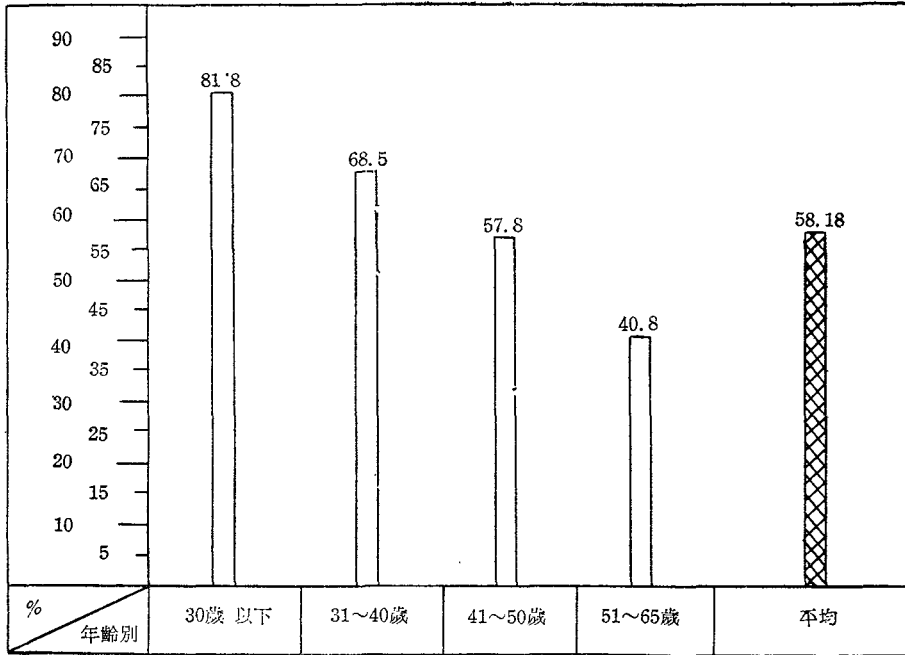
住居移徙者의 年齡層別로 區分하면 圖 <4-2-1>과 같으며 이를 分析하면 年齡이 적은 層이 移徙比率이 높고 年齡層이 위로 올라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4. 勤續年數別 分析 : 紙面關係로 省略

5. 現 住居地別 分析

많이 살고 있는 區別 順位로 보면 첫째는 學校가 자리잡고 있는 冠岳區로서 全體의 34.5

圖 <4-2-1> 年齡別 移徙者 比率



%이고, 둘째는 學校移轉前의 江北캠퍼스와 가까운 住宅地帶인 城北區로서 全體의 約 12%이다. 現 居住地를 江北과 江南으로 區分하여 보면 江北 對 江南의 住居比率은 53.7% 對 46.3%로서 江北居住者가 若干 많다.

그러나 第一章에서 記述한 것과 같이 서울市 全體의 江北 對 江南比率은 70對 30의 比率과 比較하면 서울大學校가 江南으로 移轉함에 따라 住居가 職場가 가까이로 移轉함으로써 第一章에서 假定한 서울大 移轉으로 因한 江北過密人口의 江南으로 分散할 수 있다는 것이 證明되는 重要한 事實이다. 調査者中의 江南居住者 149人中 住居移轉者는 144人으로 그 比率은 96.64%로서 大部分이 移徙한 者이다. 이를 圖表化하면 圖 <4-2-2>와 같다.

6. 家族數 및 家族構成別 分布

移徙有無別로의 平均家族數는 移徙者가 5.20人, 非移徙者가 5.77人으로 移徙者의 平均家族數가 非移徙者의 것보다 0.57人이 적으며 이는 家族數가 적을 수록 移徙者 比率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家族의 就學內容別 分析

(1) 未就學者 數別 分析

調査者中 移徙者와 非移徙者의 平均 未就學家族數는 0.82人 對 0.37人이다. 이는 未就學者가 많은 家族일 수록 移徙者 比率이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圖 <4-2-2> 江北 對 江南 現 居住地別 移徙者와 非移徙者 分布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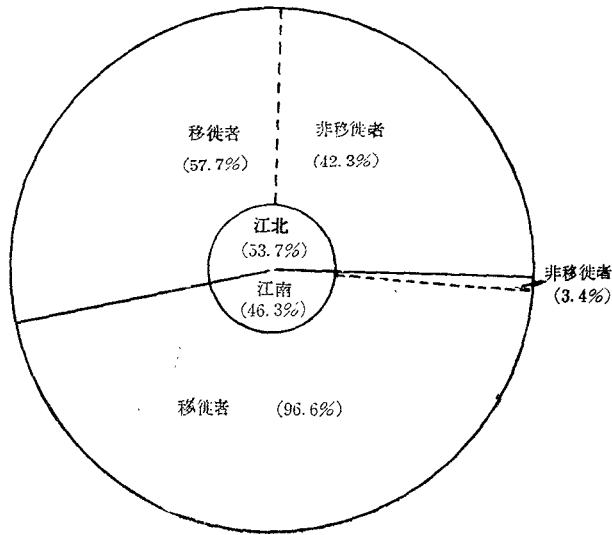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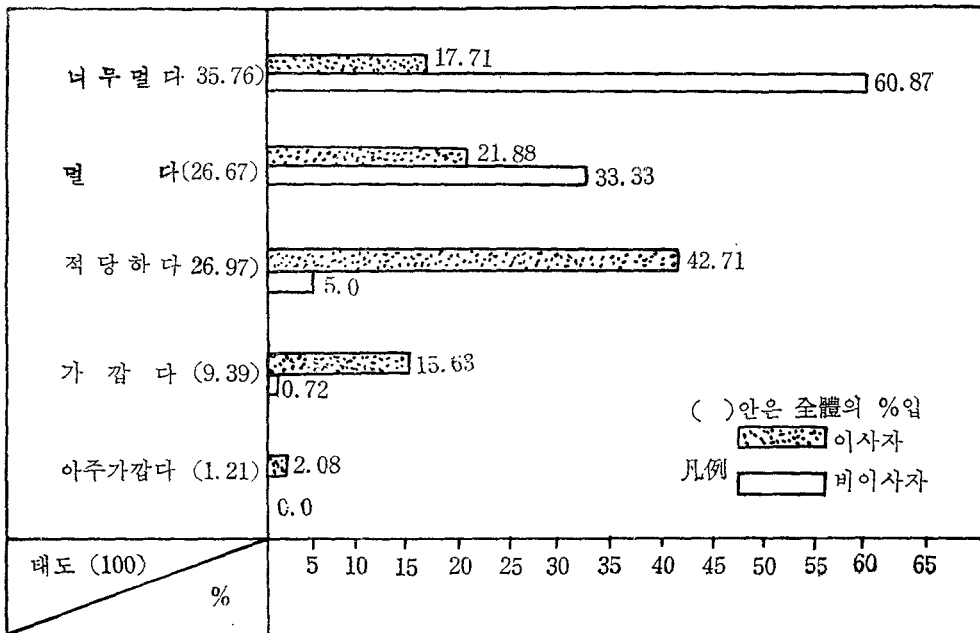


圖 <4-2-3> 住居와 學校와의 通勤距離에 對한 態度別分析



(2) 國民學校在學 數別 分析

移徙者와 非移徙者의 平均 國民學校 在學生 數는 0.69人 對 0.70人이다. 이는 國民學校 子女 有無가 移徙에 影響을 주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中高等學校 在學 數別 分析

移徙者와 非移徙者의 平均 中高等學校 在學生數는 0.42人 對 0.82人으로 非移徙者가 移徙者의 約 2倍로서 이는 中高等學校 在學生의 家族때문에 移徙 못하는 事由가 되는 것으로 국민학교의 경우와는 對照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 大學在學 數別 分析

移徙者와 非移徙者의 平均 大學在學生數는 0.33人 對 0.58人으로 非移徙者가 移徙者의 約 1.75倍로서 이는 中高等學校在學家族과 같이 大學在學의 家族이 移徙 못하는 事由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出退勤時 주로 利用하는 交通手段別 分析：紙面關係로 省略

9. 집과 冠岳캠 퍼스와 距離別 分析

調查者의 職・住間의 平均距離는 約 18.8km이며 이를 移徙有無別로 區分하면 移徙者가 13.87km, 非移徙者가 24.56km로서 移徙者가 非移徙者보다 約 1.8倍程度 짧다. 이는 學校 移轉에 따라 移徙者는 學校가가이로 住居를 移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 住居와 學校와의 通勤距離에 대한 態對別 分析

집의 位置에 對한 態度分析은 圖 <4-2-3>과 같다. 距離에 對한 態度中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教職員의 大部分이 移徙者로서 그 比率은 92.13% 對 7.87%이다. 全體의으로 볼 때 “너무멀다”와 “멀다”라는 분이 全體의 62.43%로서 職・住間의 遠距離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1. 現 居住住宅의 形態別 分析：省略

12. 歸家길에 다른 곳에 들리는 機會別 分析：省略

13. 市內버스로의 적당한 交通時間別 分析

調查教職員의 적당하다고 生覺하는 交通時間別 分布는 첫째가 16~30分으로 65.15%이며 두번째가 15分 以內로서 27.88%로서 위 兩者를 합하면 93.03%로서 大部分을 찾아하고 있다. 이는 職・住間의 적당한 距離가 30分 以內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 3 節 學校移轉 教職員에 關한 實態 分析

調查教職員 330人中 58.18%인 192人이 1971년부터 1976년 10월 말까지 住居移轉者이며 그중 75%인 144名이 學校移轉과 關聯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本節에서는 本 研究의 目的과 付合하여 이들 關聯者 中心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1. 移徙前 居住地別 分析

學校移轉과 關聯移徙者의 前居住地 分布比率은 江北과 江南이 95% 對 5%로서 이는, 移

徙者中 大部分이 江北居住者인 것을 알 수 있다. 關聯移徙者의 現 居住地의 江北 對 江南 比率은 9.86% 對 90.14%로서 大部分이 江南에 居住하고 있다. 이는 江北에서 江南으로 住居를 옮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移徙前 집과 冠岳캠퍼스 및 江北 캠퍼스와의 距離別 分析: 紙面關係로 省略

3. 移徙前 집에서 冠岳캠퍼스 移轉前의 學校(江北)로 出·退勤하실 때 가장 많이 利用한 交通手段 및 그 所要時間別 分析

(1) 交通手段

學校移轉前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첫번째는 市內버스로서 50.69%이며, 現在는 첫번째가 學校통근버스이다. 이는 學校移轉前의 市內버스利用者가 現在는 學校通勤버스 利用者로 轉換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交通時間

學校移轉前에는 關聯移徙者의 64.7%가 45分 以內者로서 半이 넘는다. 이는 비교적 學校와 가깝게 位置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移徙前 住宅의 形態別 分析

學校移轉 關聯移徙者의 移徙前 住宅形態中 單獨住宅과 아파트의 比率은 88.4% 對 11.6%이고 移徙後의 比率은 57.64% 對 42.36%로서 아파트의 比率이 커졌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5. 移徙前 住宅과 現 住宅과의 建物, 延面積, 垜地, 價格의 比較別 分析

移徙前後의 建物延面積 比較別 分析은 關聯移徙者中 “더 넓어졌다”는 敎職員이 57.64%로서 首位이다.

垜地의 比較別 分析은 “더 넓어졌다”는 敎職員이 68.81%로서 首位이다.

價格의 比較別 分析은 “높았다”는 분이 63.89%로서 首位이다.

위의 分析을 종합하면 이사者는 이사하면서 價格面에서 더 投資를 하였고 집의 延面積 및 垜地도 넓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移徙한 時期別 分析

關聯移徙者의 移徙時期 中 많은 順位부터 보면 첫번째가 1974年 32.64%이고 두번째가 1975年으로 30.55%이며 세번째가 1976年으로 15.77%이다. 위의 傾向을 分析하면 住居移轉動態는 1974年을 頂點으로 하여 分布되고 있다.

7. 移徙 事由別 分析

關聯移徙者의 移徙事由中 優先順位別로 보면 첫번째가 “學校와의 交通때문으로”로서 75.69%이고, 두번째 事由는 “집이 좋지 않아서”로서 11.80%이다.

따라서 移徙의 主된 理由는 學校의 江南移轉때문에 學校와의 交通問題인 理由인 것을 알 수 있다.

8. 移徙後 住居地에 對한 滿足度別 分析

關聯移徙者의 滿足度分布를 보면 “滿足 또는 매우 滿足하다”는 分은 34.03%에 不週하고 “不滿足 또는 다시 移徙를 하여야 하겠다”는 分이 22.24%이고 “그저 그렇다”라는 分이 47.22%로서 全體的으로 보면 學校移轉에 由인 移徙를 하였지만 現 住居地에 對하여 大體的으로 不滿足한 狀態라고 볼 수 있다.

第 4 節 住居非移轉 教職員에 關한 實態分析

1. 學校 移轉前의 江北學校와의 距離別 分析

非移轉 教職員은 41.82%인 138名으로 그중 70%가 8km 以內의 近距離에 居住하고 있다. 이것은 冠岳 「캠퍼스」의 平均通勤距離는 移徙者가 13.87km, 非移徙者가 24.56km임과 比較할 때 通勤거리가 상당히 길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 移轉前 學校(江北)의 出退勤 交通手段 및 所要時間 分析

非移轉者 移轉前 出退勤時의 主要交通手段은 76%가 市內버스를 利用하였으며 所要時間은 30分 以內가 61.59%를 차지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通勤시간이 30分 이내라고 하는 앞에서의 分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캠퍼스 이전 前에는 比較적 職・住近隣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移徙할 意向의 分析

移徙할 意向이 있는 教職員은 非移徙者의 6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現在 推進中인 者가 12.32%, 몇년후에 하려는 者가 21.0%, 생각만 하고 있는 者가 28.99%를 나타내고 있어 移徙를 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보인다.

4. 관악캠퍼스 移轉과 關聯을 갖고 있는 移徙意向 分析

現在 移徙意向이 있는 分중 學校移轉과 關聯을 갖고 있는 分이 非移徙者의 95.35%이나. 이것은 職・住近隣에 對한 實現의 期待가 相當히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5. 現在 移徙할 意向이 없는 分의 具體的 事由別 分析

“집이 學校와 멀다고 生覺은 하나 다른 事由로 移徙할 수 없다”는 分이 非移徙者의 99.55%로서 거의 全部이다.

6. 移徙못하는 事由 및 移徙할 意向이 없는 事由中 優先順位別 分析

위 事由를 優先順位別로 보면 첫번째가 「子女들의 教育問題」가 41.08%이고 그 다음이 「住宅處分과 購入의 困難」이 27.9%, 「本人 或은 家族의 社會活動때문」이 13.18%를 보이고 있어, 그 事由가 主로 住居地域內의 都市便益施設의 不足에 基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學校近處에 새집을 마련할 때 當局에 원하는 措置別 分析：省略

8. 現在 移徙를 할 때 마련하고자 하는 住宅의 形態別 分析：省略

第5章 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관한 問題點과 그 對策

第1節 住居移轉에 관한 問題點

住居移轉者의 年齡이 젊을수록, 未就學 兒童數가 많을수록, 그리고 子女가 적을수록 住居移轉者가 많고 中·高等學生과 大學生의 數가 많을수록 住居非移轉者가 많다고 하는 事實은 住居地 近處에 家族의 敎育과 活動에 必要한 施設들이 滿足스럽지 못하여 都市活動의 大部分이 아직도 都心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住居地域 隣近에 家族들을 爲한 日常의 活動과 「서비스」를 뒷받침할 施設들이 갖추어 지지 않고서는 職·住近隣에 對한 實現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第2節 職·住近隣實現의 方向

(1) 移徙를 하지 않은 分의 主된 理由는 子女들의 敎育問題였다. 이것은 通學距離가 멀어진다는 것과 轉學을 하더라도 現在 學校보다 水準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現在 都心に 密集돼 있는 學校들을 可及의 江南으로 分散移轉시켜서 江南 職·住近隣者에게 子女敎育에 대한 便益을 提供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非移徙者의 大部分이 移徙意向을 갖고 있으면서도 本人이나 家族의 社會活動이나 社會, 文化的 都市便益施設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移徙를 꺼리는 傾向이 相當히 높았다. 이것은 單純한 住居를 爲한 施設만을 造成해 줄것이 아니라 都心이 갖는 機能을 分散시켜서 都心に 가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住居移轉에 따라 그 周圍를 副都心으로서의 機能을 갖도록 開發해 줄 必要가 있다.

(3) 現在 居住하고 있는 住宅의 處分과 移徙할 住宅의 購入困難이 職·住近隣을 방해하는 또 다른 要因이었다. 이것은 職·住近隣을 원하는 者에게 좀 더 積極的인 支援策이 切實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4) 移徙를 꺼리는 또 다른 理由中的 하나는 이웃과의 社會的 친숙관계 때문이다. 大部分의 移徙不滿者들이 移徙後 자기동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을 꺼리는 事實을 보더라도 職住近隣의 實現을 위해서는 住居地域이 都市活動에 必要한 諸般施設과 더불어 이웃間的 社會的 同質意識을 갖일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를 造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第6章 結 論

위와 같은 實態分析의 整理된 事項과 職·住近隣實現을 위해 提示된 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學校移轉과 關聯이 있는 住居移轉者가 總移轉者의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서울대학교 移轉에 따른 職·住近隣의 實現率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職・住近隣の 促進을 위해서는 住宅에 對한 배려만 할 것이 아니라 社會, 文化的 都市便益施設이라든가 子女들의 學校移轉과 같은 副都心開發政策이 수반되어야 한다.

(3) 職・住近隣の 實現을 위해서는 通勤「버스」 등을 통한 交通時間의 短縮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住宅地 分讓이나 아파트의 알선, 住宅資金의 補助 등을 통한 보다 積極的인 支援策이 切實하다.

(4) 都市의 機能을 都心에만 集中시켜 都市를 單核化할 것이 아니라 都心の 機能을 分散시켜 多核化시킴으로써 職・住近隣에 의한 都市問題 解決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都市內의 都市」라는 都市計劃手法을 통한 都市開發政策은 서울大學校 移轉에 따른 職・住近隣實現 可能性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都心機能을 分散시킴으로서 人口分散 및 都市發展을 위해 相當한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I. 東洋文獻

(1). 書 籍

1. 姜五奎, 統計學, 서울, 博英社, 1973.
2.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서울, 博英社, 1976.
3. 金憲鎭, 컴포터 프로그래밍, 電波科學社, 1975.
4. 盧隆熙, 新都市開發論, 서울, 博英社, 1973.
5. 劉甲壽, 國土開發論, 서울, 建設研究社, 1976.
6. 李泰祐, 都市開發論, 서울, 文化世界社, 1973.
7. 趙錫浩, 孔錫英 共著, 學校와 地域社會, 서울, 實學社, 1975.
8. 韓垣澤, 都市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6.

(2). 論 文

1. 金 仁, 都市人口密度分布의 「패턴」과 成長에 關한 研究, 環境論叢 第1卷, 第1號,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1976.
2. 金炯國, 首都圈人口過密의 現況과 展望, 大學新聞, 982號 1976. 11. 22.
3. 金炯國, 서울시 人口抑制策에 對한 提言, 미래를 묻는다(4), 한국미래학회, 1976.
4. 金海東, 서울의 無住宅家口, 行政論叢, 第八卷, 第1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0.
5. 李智皓, 韓國의 都市化와 問題點, 大學新聞, 980호 1976. 11. 8.
6. 周允植, 住居立地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4.
7. 崔大奎, 地域社會開發을 통한 住民意識 構造變化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8. Hae-Dong Kim, The Housing Owners in Squatting Areas in Seoul, 行政論叢, 第十

三卷, 第二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5.

(3). 其 他

1. 經濟企劃院, 인구센서스, 1975.
2. 서울大學校, 서울大學校三十年史편찬위원회, 서울大學校出版部, 1976.
3. 서울大學校 建設本部, 綜合캠퍼스「마스터플랜」報告書, 1972.
4. 서울大學校, 統計年報, 第15輯, 서울大學校出版部, 1976.

II. 西洋文獻

(1) 書 籍

1. F.N. Kerlinger,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2. Janda, Kenneth, *Data Processing*,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3. W. Waller, *The Sociology of Teaching*, N.Y. John Wiley, 1965.
4. Leonard Reissman, *The Urban Process*, The Free Press of Glencoe, London, 1964.

(2) 論 文

1. A.H. Barton, The concept of Property Space in Social Research, in P.F. Lazarsfeld and M. Rosenberg (eds.), *The Language of Social Research*, The Free Press, N.Y. 1955.
2. John F. Kain, The Journey-to-work as a Determinant of Residential Location, in Alfred N. Page and et. al., ed., *Urban Analysis*, Scott., Fores man and Co. 1970.
3. Lauchlin Currie, The Interrelations of Urban and National Economic Planning, *Urban Studies*, 1975, No. 12.
4. Ralph Gakenheimer, New Towns in-Town for Developing Countries, *Urban Studies*, 1976, No. 13.